



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용연학교에 띄우는 소식-4

-더 뻘뻘어져서 졸업하면 어쩌나
내가 처음 용연학교에 왔을 때는,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정말 막막했다. 애당초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대안학교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곳을 다녀야 하는 건가 고민도 많이 했다. 지금 와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해조차 할 수 없지만 말이다.
내가 바라본 학교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수위 노는 친구들도 많고, 교실도 특이하고, 학교도 작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선생님들,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그 편견들은 모두 바뀌어 갔다.
우선 용연학교는 원래 다니던 학교보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더 넓었다. 최소한의 규칙 안에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본교에서는 좁은 범위의 틀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더 뻘뻘어지고 벗어나고 있었다. 행동에 제한을 두면 들수록 넘어서는 딱 중학생다운 발상이었다.
하지만 용연학교에 와서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바로잡혀진 것 같아서 내 스스로도 신기하게 생각했다.
내 조그만 장점들도 찾아주시고, 고민이 있을 때

다 상담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때도,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용연 선생님들은 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도 감당이 안 되는 수십 번 기본이 바뀌는 하루하루를 선생님들은 끝까지 지켜봐 주셨다. 아직도 친구들과 중학교 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온다. 갈 때는 더 뻘뻘어져서 졸업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사람이 돼서 졸업했다는 그런 얘기를 말이다.
나는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졸업했다. 지금도 중학생 후배들이 용연을 찾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만약 중학교 때 용연을 가지 않고 계속 뻘뻘어던 채로 본교에 남아있었다면 지금처럼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도 못 가고, 좋은 선생님들도 못 만난 채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
나는 지금도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해준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미안하다.
중학생 시절의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꼭 용연학교를 가라고 말하고 싶다.
2018. 1.
박수아 올림(2016년 수료생)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얼마 전 김애란 작가가 출연한 손석희의 질문들을 시청하다가, 오래도록 잊지 않던 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뉴스 말미에 전하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전하던 중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방송사고처럼 느껴질 만큼 이어진 침묵이었지만, 그 어떤 문장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을 중요

과 감정의 떨림까지 담기는 어렵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설교 또한 '정답을 전달하는 일'로 이해되기 쉽고, 더 확신에 찬 어조와 단호한 문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가 지나치게 확신의 언어로만 표현될 때, 누군가에게 위트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말이 때로는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현장에서 수시로 경험합니다.
설교는 완전한 답을 제시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확신뿐

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완성된 문장보다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더 먼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말뿐 아니라 멈춤과 침묵으로도 완성됩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에서 "확신은 진리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확신을 내려놓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태도일지도 모를니

머뭇거림, 그리고 진실의 자리

하게 여깁니다. 정확한 문장, 논리적인 전개, 흔들림 없는 전달을 추구합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순간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말이 멈추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머뭇거림은 미숙함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음, 이 판단이 옳는지 고민하며 잠시 멈춥니다. 그 머뭇거림은 무능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 사유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빠른 답을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AI기술은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 갈등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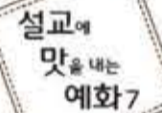
아니라 떨림과 질문,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엿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언변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머뭇거림이 있었을지라도, 그 안에 삶이 담겨 있었었습니다.
최근 저는 설교 중에 몇 주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를 언급하며 잠시 말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준비된 문장이 있었지만 말을 잇기 어려웠고, 짧은 침묵 뒤에야 다시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머뭇거림이야말로 설

다. 우리는 오늘도 말과 침묵 사이에서, 그 머뭇거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일교 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

1. 내가 달려갈 길

주지사가 된 이민 소년

휴 애런슨은 18세의 젊은 나이에 고향 스웨덴을 떠나서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마침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라탔으나 그만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되어 실컷 얻어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때 마는 볼로 감기에 쪼그리고 앉았는 감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도 처

량해 보일 수가 없었다.
'차라리 저 감기에 몸을 던져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때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 말씀을 기만히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 있게 뛰어보았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쥐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훌러기는 강물 위에 떠내려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는 힘 있게 뛰어보기로 결심했다. 30년 후, 휴 애런슨은 문테나 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야 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본지는 위 글을 퍼낸곳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퍼낸곳 크리스천리더 / 출판기획팀 지음)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1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3:6)
능력의 주 하나님!
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인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실재와 연합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저희 자녀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자신 안에 계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 안에 계신 생명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언어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퍼낸곳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퍼낸곳 공란출판사 / 박은주 지음)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